

"백두산... 온천, 가스분출로 보아 휴화산 아니다"

중국·북한과 함께 체계적 연구 필요성 느껴

김주환 교수의 백두산·압록강 답사기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본교 김주환(지리교육과·지형학)교수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지를 답사했다. 이 글은 백두산의 지형, 지질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편집자)

◇천지에 오르는 길목에서 장백폭포를 배경으로 한 필자

1. 머리말

우리민족에게는 압록강과 백두산이 실제 이상의 상징적이고 선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개국설화가 그렇고 옛조상들의 활동무대였던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생각된다.

이번에 사단법인 북한연구소의 협조로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지의 국경부근을 돌아 볼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는 압록강 주변과 백두산에 한정된 지형, 지질적인 이야기만을 간단히 개관해 보려고 한다.

2. 우리나라 지질구조의 특성

우리나라의 지질구조는 중국대륙과 공명점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지질구조는 평북계마지, 평남지형사, 경지지, 육천지형사, 영남지, 낙동분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대륙의 구조와 공명성이 많다. 암석의 분포는 화강암과 화강편마암 계통이 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3기층과 그 이후의 신기층 및 퇴적암의 분포는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소규모로 나타난다.

3.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

우리나라 지형의 특색을 하천과 산지에 한정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하천은 면적에 비해 그 수가 많다. 길이 400km이상의 하천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낙동강, 한강, 금강 등 6개하천이다. 이러한 하천의 유로는 대체로 지질구조와의 관계로 결정된다. 하류는 대개 산맥주향에 따르는 중국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산지는 동해안쪽이 높고 서해안쪽이 낮은 이른바 경동성 지형을 나타낸다. 또한 산지의 특성으로는 전국토의 약 7할을 차지하면서도 그 대부분 산지는 기복이 미약한 저산성 산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반도의 서부에는 고도가 별로 높지 않은 저산성 내지 파랑산의 구릉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높은 고도에는 과거 지각변동 이전의 지형을 말해주는 평탄한 면이 존재하며 고위평탄면과 저위평탄면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한반도는 안정된 지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활화산이 없고, 따라서 화산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화산 지형도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화산지형은 대체로 제3기말부터 제4기에 분출한 알타리조연암과 현무암이 대부분이다.

4. 압록강 주변의 자연환경

압록강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만주사이에 있는 국경하천이다. 하천의 길이는 920km이고 유역면적은 31,751k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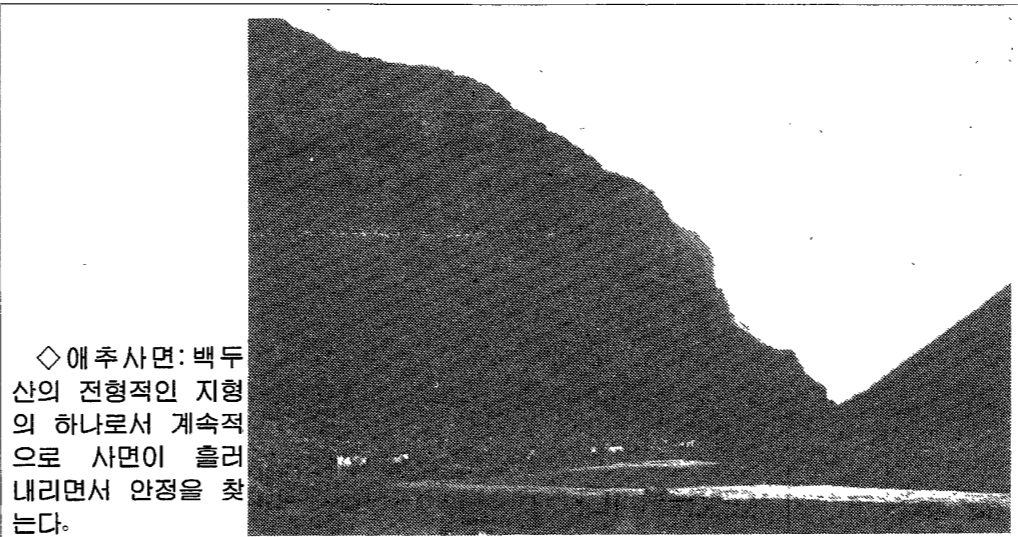
백두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허천강, 장진강의 지류를 모아 서북쪽으로 흘러 중강간에 이르러서는 유로를 서남으로 잡고, 도중에 자강성, 룡도강을 합치고 초산에 이르러 다시 중만강의 지류와 함께 용암포에서 서한만으로 유입한다.

백두산에서 압록강이 바다로 유입되는 강 어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00km인데, 강 길이는 그 두배 이상이 된다.

압록강은 수력원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하천연안의 주민교통과 임업, 어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압록강은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경계가 될 뿐 아니라 문화적인 경계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압록강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ya-liu chiang'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명칭을 중국고전에서 보면 ya (duck)와 li (greenish blue)의 결합이며 이것은 강물이 푸르고 그곳에 사는 오리종류의 색깔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압록강은 고려조말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선이 정립되기까지는 정치적인 경계역할을 하지 않았으



◇애추사면: 백두산의 전형적인 지형의 하나로서 계속적으로 사면이 흘러 내리면서 안정을 찾는다.

나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의 한국전쟁중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압록강은 상류 동쪽 끝부분을 따라서 좁고 긴 현무암절 용암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역면 전의 암석인 선캄브리아기의 암석위를 흐르다가 하류쪽에 이르러서야 충적층을 이룬다. 압록강의 하천 양안은 대부분 깊고 험곡같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데 하상면과의 비고는 500~1000m 이상 되는 곳들도 있다.

압록강의 상류는 경사가 급하며 많은 급류와 폭포, 하상면에 운풍적인 기반암을 발견할 수가 있다. 중류에서는 상류보다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상당량의 이동물질

5. 백두산의 지질과 지형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고봉의 산이다. 최근까지 화산활동을 하였던 휴화산으로 산이 북쪽으로는 장백산맥이 북에서 남서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며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2000m 이상의 산들이 여러개가 있다.

백두산의 형성시기는 신생대 제3기말경인 260만년전에 있었던 화산활동이 최초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화산활동이 있기 전의 백두산 일대는 매우 낮고 평평한 곳이었으며 대지의 상대적인 고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당시의 평균고도는 1,500m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현재와 같은 화산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신생대 제4기초의 화산활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때 가장 큰 현무암 대지를 형성하였고 현재의 높이 2749.2m의 윤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두산을 휴화산이라고 하여 화산활동이 중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에도 최고 82°C 정도의 온천이 상존하고 있고 분기공에서는 간헐

적이기는 하지만 가스가 분출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지진이나 산지 사면의 붕괴등과 같은 현상은 현재에도 화산작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의 화산활동은 증식분출과 열하분출의 두가지 방식의 용암분출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동-북서-동서 방향의 단열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교차하는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였다. 또한 백두산 지층이 상층의 화산회와 하층의 이탄토로 구성되어 있다.

연변에서 백두산까지의 지형은 5개의 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천지의 외륜산에 해당하는 사면

은 빙식지형의 흔적인 편곡등의 모습이 보이며 최근에는 1670m 고도에서 빙하에 의한 퇴적물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빙하지형 내지는 추방하 지역에 속하였던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화산지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백두산의 지형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백두산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형으로는 풍식지형의 예를 들 수 있다. 강한 바람에 의해 풍식공, 풍식벽, 풍식기둥과 같은 지형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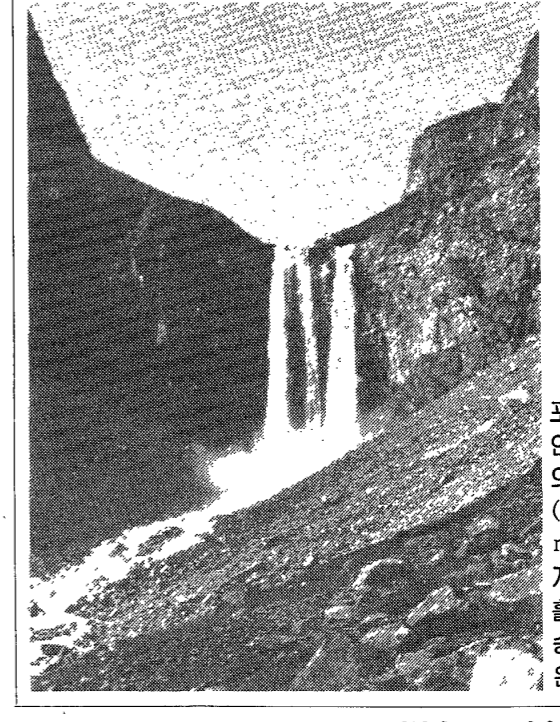
하천 유수에 의한 지형의 예로는 많은 폭포와 급류등을 들 수 있다. 계곡의 형태도 보통 U자형과 같은 곡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에서는 수직절벽 같은 하곡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호수 침식에 의한 지형의 예는 천지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심할 경우는 파고가 1m 이상에 이르고도 한다.

구조지형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백두산 전체를 통하여 단층들이 방사상으로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방향으로 나타나는 단층군들은 그 지역이 침식에 약하게 하는 구조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백두산 입구에서 비룡폭포쪽으로 접근하는 곡의 양안에는 전형적인 애추사면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애추는 주위의 암석보다 강해서 입상분포가 일어나는 것보다 파상으로 무너져 내려 아랫쪽에 쌓이고 또 이동이 되는 현상이다. 애추의 형성시기는 옛 화산지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백두산의 경우 애추는 현재에도 계속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서 산사면의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다.

다음은 천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천지는 해발 2155m, 남북길이 4.55km, 동서길이 3.35km, 수면면적이 9.82km², 평균수심 213m, 최고수심 384m이다. 최저기온은 영하 47.5°C, 최고기온은 18°C이다. 최고풍속은 초속 60m, 강수량은 연평균 1400mm, 식물은 200여종이 서식하며 주변 물태가 14km이다. 수원은 대기로부터의 강수와 강설 및 지하수에 의한 것이며 보충되는 물과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균형을 이루며 수심



◇장백폭포: 전형적인 유수에 의한 지형(길이 68m)으로 천지에서에서부터 흘러내리며 솜화강의 원류이다.

진폭이 1.67m이다. 천지의 형성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천지 주위에는 16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기후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부근에는 항상 습기가 많고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 비바람이 불고 짙은 안개가 끼며 구름이 물러가기도 한다.

지도까지 천지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로는 천지가 단순히 하나의 분화구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관찰에 의하면 천지는 백두산의 화산폭발의 시기가 몇 수를 고려할 때 최소한 3~4개 이상의 화구가 연립되어 현재와 같은 천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천지 호수의 윤곽이 지극히 불규칙적이며, 용암류의 방향, 화산퇴적물들의 특성, 천지 주변의 여러사상들을 종합해 볼때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6. 결론

우리나라의 지질구조는 중국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천의 수는 지역면적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산지의 특색은 경동성 지형을 이루고 있고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형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압록강은 수력원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하천 연안의 주민생활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백두산은 일반적으로 휴화산이라고 생각하여 화산활동이 중지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이나 필리핀등의 화산폭발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백두산에는 여러형태의 지형이 나타난다. 즉 화산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하면 빙하지역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구원현상과 관련된 지형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종합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천지의 형성은 수차례의 화산폭발에 의한 화구가 연립되어 무너져 내린 흔적이 분명하다.

중국에서는 압록강과 백두산에 관한 관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우 약하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 북한과 더불어 조경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후원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操縦訓練生 모집

당신도 2년후에는 대한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의 주인공 - 파일럿/그간 조종경력자나 특수 교육기관 출신자에게만 개방되었던 그 문을 당신에게 활짝 열어드립니다. 일반 대졸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하게 민항공 조종사를 양성 하고 있는 대한항공 기조비행훈련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세계의 하늘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募集人員 및 應試資格

모집인원	응시자격
60~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자가용조종사 면장소지자는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199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전공제한 없음)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체건강한 자로서 나인시력 1.0 이상인 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조종사 면장소지자는 무대함

教育期間 및 處遇

- 교육기간: 2년
- 처우: 대졸사원에 준하는 처우 (교육이수후 소정의 자격취득시 대한항공 조종사 요원으로 입사)

提出書類

- 출시원서 (명사 소정양식).....1부
- 출입 (예정) 증명서 또는 전학한 성적증명서.....1부

銜衡方法

평가시험	과목	일시	장소
영어 일반지식	기조수학	9월 8일 (월)	이화여고
기조수학	기조물리	09:00~11:30	
일반상식			

●후후 전형절차: 적성면접→신체검사→비행실기평가시험→면접
 ※후후 전형일정은 평가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

應試願書 交付 및 接受

- 기간: 1991년 8월 26일~9월 7일 (공휴일 제외)
- 교부처: 사소문 KAL 빌딩 및 대한항공 국제 전 지점/영양소
- 접수처: 사소문 KAL 빌딩 및 부산, 제주지점

其他

- 우원접수는 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우원번호 100-608, 서울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인사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재출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시 인사부 또는 접수처로 문의 바람

TEL: 서울 751-7334/6 부산 461-7212 제주 50-8211

금회모집 이후에는 年中常時로 원서소 및 접수할 예정이며 채용전형은 수시로 실시함.



용산에서 평택까지 걸친 '핵전선'

현장취재

한민족의 장래가 매일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리라 하겠다.

한반도지역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일대 획을 그을수 있는 남북UN분리가입과 그의 냉전체제의 와해등 급급의 변화는 우리 한민족이 나아가 갈 발전방향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최근 한민족의 발전방향에 큰 걸림돌로서 점차 부각되어 새로운 정치이슈화되는것이 있다. '비핵지대화'의 논의가 그것이다.

지금도 원자폭탄 후유증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이 있듯이 우리 민족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핵은 세계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우리 한반도에선 더욱 증대화 되었다. 그래서 이른바 '비핵지대화'라는 반진핵 핵축운 등의 정당장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다.

이에 핵의침범과도 불려오는 미군들을 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고있는 평택, 송탄기지 일대의 주민들의 의식을 알아본다.

비핵지대화등 핵에 관해서는 무관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안면도 핵처리시설건설 반대투쟁으로 평택에서도 핵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게 사시입니다"라고 말한다.

대가 형성되어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지난 4월 '우리평택'과 '평택신문'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평택시민의 71.3%와 73.6%가 기지 이전에 반대했다고 한다. 반대이유로는 생

리 미군기지의 이전을 환영한다는 이곳은 이른바 '침묵의 땅'처럼 보였다.

그러나 간혹 쫓겨온 플래카드도 눈에 많이 띄어서 플래카드의 내용이 상임주민들의 본심이 아니라는

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우선 저의 마음에서부터 은연중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필요성도 다소 느끼는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력의 약화, 북의 남침 가능성등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정도 핵에대해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것도 간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기지가 평택으로 향할때 만났던 택시운전사의 이야기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였다.

평택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도적인 의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그 아저씨는 "저 역시 학생들의 핵을 없애고 한반도에서 미군들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이곳 평택에서 20여년 넘게 살면서 생각할때 미군이 우리 평택에게 준것은 평화도 도움도 아닌 솔직히 폭력과 SEX관련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의 영향력을 무시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한 예로 아직도 상존하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등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은 아직까지 우리국민들의 통일운동과 비핵



▲안정리 K-6 미군기지 옆의 용산기지 평택이전 환영 플래카드 두 군기에 의해 찢겨져 있다.

긴장완화-평화통일 전제 '비핵지대화' 주민들 의외로 핵무기 필요성 느껴

따라서 시민모임에서도 핵의 위험성과 공포를 잘 알려줄 수 있는 비디오, 사진전, 슬라이드를 제작, 홍보할 계획을 준비했다는 한 아저씨는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택이 비핵지대화 되어야지 않겠습니까?"라고 웃으며 앞으로의 미군기지철거운동에의 큰 포부를 밝혔다.

핵, 교육, 환경적인 면에서의 불이행한 점을 들었다고 하나 나머지는 13.3%는 기지 이전에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로 주로 기지주변의 상인

것을 간접적이거나 짐작하게 만들었다.

역시 한민족은 같은 찢음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기지가 만난 기지주

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임모씨(남·27세)의 말은 또 그를 나름대로 반미의 의견을 말해 주었다.

"사회 일부에서는 저희들을 무슨 미국노인양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희상인들은 저희의 찬성의견이 평택시민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단정거회의 입장만 단정거회의 관련된 특수성이 담긴 의견에 지나지 않는것일 따름입니다"라며 또 한 최근의 남북한동시 핵사찰 촉구와 비핵지대화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저희들도 역시 남북한 모두가 비핵지대화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서로가 다 평화롭게 살고자하

평택에서 북쪽으로 버스로 20여분 남짓 달리 오산 미군기지기가 있는 송탄에 도착했다. 송탄에 도착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생생달리는 미군들의 모습이 도로옆 눈독에서 농약을 치는 농민의 모습을 무척 두드러지게 했다.

먼저 88년도부터 이곳 송탄지역의 문예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모임터'라는 대학생 풍물패를 찾았다.

것을 간접적이거나 짐작하게 만들었다.

역시 한민족은 같은 찢음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기지가 만난 기지주

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임모씨(남·27세)의 말은 또 그를 나름대로 반미의 의견을 말해 주었다.

"사회 일부에서는 저희들을 무슨 미국노인양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희상인들은 저희의 찬성의견이 평택시민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단정거회의 입장만 단정거회의 관련된 특수성이 담긴 의견에 지나지 않는것일 따름입니다"라며 또 한 최근의 남북한동시 핵사찰 촉구와 비핵지대화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저희들도 역시 남북한 모두가 비핵지대화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서로가 다 평화롭게 살고자하

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임모씨(남·27세)의 말은 또 그를 나름대로 반미의 의견을 말해 주었다.

"사회 일부에서는 저희들을 무슨 미국노인양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희상인들은 저희의 찬성의견이 평택시민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단정거회의 입장만 단정거회의 관련된 특수성이 담긴 의견에 지나지 않는것일 따름입니다"라며 또 한 최근의 남북한동시 핵사찰 촉구와 비핵지대화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저희들도 역시 남북한 모두가 비핵지대화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서로가 다 평화롭게 살고자하

평택에서 북쪽으로 버스로 20여분 남짓 달리 오산 미군기지기가 있는 송탄에 도착했다. 송탄에 도착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생생달리는 미군들의 모습이 도로옆 눈독에서 농약을 치는 농민의 모습을 무척 두드러지게 했다.

먼저 88년도부터 이곳 송탄지역의 문예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모임터'라는 대학생 풍물패를 찾았다.

평택에서 북쪽으로 버스로 20여분 남짓 달리 오산 미군기지기가 있는 송탄에 도착했다. 송탄에 도착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생생달리는 미군들의 모습이 도로옆 눈독에서 농약을 치는 농민의 모습을 무척 두드러지게 했다.

먼저 88년도부터 이곳 송탄지역의 문예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모임터'라는 대학생 풍물패를 찾았다.

평택에서 북쪽으로 버스로 20여분 남짓 달리 오산 미군기지기가 있는 송탄에 도착했다. 송탄에 도착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생생달리는 미군들의 모습이 도로옆 눈독에서 농약을 치는 농민의 모습을 무척 두드러지게 했다.

먼저 88년도부터 이곳 송탄지역의 문예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모임터'라는 대학생 풍물패를 찾았다.

평택에서 북쪽으로 버스로 20여분 남짓 달리 오산 미군기지기가 있는 송탄에 도착했다. 송탄에 도착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생생달리는 미군들의 모습이 도로옆 눈독에서 농약을 치는 농민의 모습을 무척 두드러지게 했다.

먼저 88년도부터 이곳 송탄지역의 문예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모임터'라는 대학생 풍물패를 찾았다.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갑시다 연방제란?



사상·제도차 인정 한 통일방안

연방제란 무엇인가. 91서울법민족 대회에서는 가장 주요한 구제적 통일방안을 연방제로 집중시켰다.

연방제가 통일의 완성형태라 하는 이유는 남과 북의 민족적 단결의 수준을 고도로 높여 민족의 방위와 외교문제 등에 대한 통일적 대응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남·북 지역 정부가 존재하지만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일의 완성형태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는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의식을 확고히 갖고 서로 단결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남과 북의 '스스로' 일체의 외세개입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분단을 지향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축출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연방제란 어떤 체제인지 알아보자.

가장 쉽게 정의하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의 사회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정부를 세워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남과 북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국방, 외교 등과 같은 분야의 권한을 행사하고 남북의 각 지역정부는 그 밖의 분야에서 독자성을 갖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 자체가 통일의 완성형태로 제기되며

이점에서 예전에 제기되어 왔던 총선거를 위한 과도적 연방제와 크게 다른 점이다.

연방제가 통일의 완성형태라 하는 이유는 남과 북의 민족적 단결의 수준을 고도로 높여 민족의 방위와 외교문제 등에 대한 통일적 대응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남·북 지역 정부가 존재하지만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일의 완성형태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는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의식을 확고히 갖고 서로 단결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남과 북의 '스스로' 일체의 외세개입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분단을 지향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축출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연방제란 어떤 체제인지 알아보자.

가장 쉽게 정의하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의 사회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정부를 세워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남과 북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국방, 외교 등과 같은 분야의 권한을 행사하고 남북의 각 지역정부는 그 밖의 분야에서 독자성을 갖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 자체가 통일의 완성형태로 제기되며

연방제란 무엇인가. 91서울법민족 대회에서는 가장 주요한 구제적 통일방안을 연방제로 집중시켰다.

연방제가 통일의 완성형태라 하는 이유는 남과 북의 민족적 단결의 수준을 고도로 높여 민족의 방위와 외교문제 등에 대한 통일적 대응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남·북 지역 정부가 존재하지만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일의 완성형태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는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의식을 확고히 갖고 서로 단결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남과 북의 '스스로' 일체의 외세개입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분단을 지향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축출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연방제란 어떤 체제인지 알아보자.

가장 쉽게 정의하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의 사회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정부를 세워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남과 북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국방, 외교 등과 같은 분야의 권한을 행사하고 남북의 각 지역정부는 그 밖의 분야에서 독자성을 갖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 자체가 통일의 완성형태로 제기되며

학술정보

관계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맥 펴냄 4천원)

■한국공해 리포트(니시나 겐이치 노다 교유미 지음, 육해영 옮김)

각종 공해문제의 통계자료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땅의 공해현실을 조명한 충격보고서이다. 나아가 공해와 관련한 지역주민운동, 반진핵운동등 사회현황을 등과 맞닿는 부분의 많은 정보와 자료를 세심히 제시하고 있다. (개마고원 펴냄 3천5백원)

VIVA

삼미유통

젊음이 모두 모여라- 드디어 독립국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 순수한 젊음으로 창조하는 젊음으로 이 땅에 우뚝 솟아오른 우리들의 독립국. 우리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자 이제 이곳에서 진정한 젊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나라를 건설해가자. 비바!

젊음의 독립국, 비바!

「오직 젊음만을 위한 전문백화점 VIVA! 경제적이고 개성적인 젊음을 위해 이태원에 우뚝 솟아 올랐습니다.」

창조하는 젊음이 살아있다! 강한 젊음이 폭발한다! 지하1층에서 지상 10층 구석구석까지 젊음만을 위한 공간으로 완성된 비바- 매일 다양하게 벌어지는 각종 이벤트, 젊음의 액센트와 칼라가 담겨있는 각종 신상품들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바에서 만나고 비바에서 젊음을 노래하십시오.

8월 24일 OPEN

■젊음의 독립국기금 (대표전화: 795-4100)

오른 전-후에는 다채로운 행사 및 특별 사은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뱅크 회원모집
VIVA 백화점에서는 대학생들의 건전하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 서울내 대학 재학생인 남녀 학생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재학생명세서 1통, 신청서 (당시 소정양식)
- 아르바이트 장소 : VIVA백화점 2,3,4,5층
- 모집기간 : 1991년 9월 1일부터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VIVA백화점 4층 소비자상담실
- 문의전화 : 795-4100 (교환 : 2440, 2441)

'통일'주최 갈라진 내조국 하나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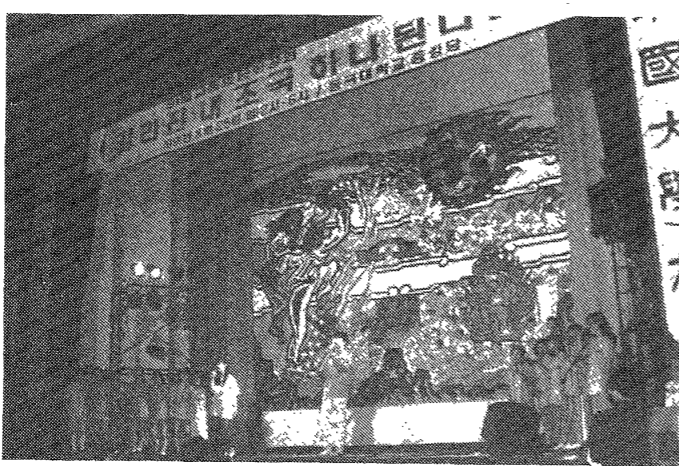
지난 25일 본교 중앙당에서는 '갈라진 내조국 하나된다면'이라는 제목의 통일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이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통불협) 주최로 2시·6시 2차례에 걸쳐 공연되었다.

공연이 시작되던 통불협 의장 지선님의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 바로 "불교는 인간의 현실고에서 기인하여 이 현실고를 고치는 것이 곧 정토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 현실고의 근원은 분단을 허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말이였다.

이 공연은 모두 아마추어들이 구상된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끄러운 진행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신선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번 공연은 총 4과장으로 구성

불교도들의 통일외지로 어우러진 한마당



◇불교계의 통일외지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까지 우리의 쓰라린 역사가 되겠어 보고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재조명 해보는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이 3과장은 이라크국민 4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걸포전 이후 미국의 더욱 노골화되는 군사력증강 정책속에서 한미 전시적수권 지원 협정, 북에 대한 해상할 강요등 일련의 사건들을 '뉴스'라는 형태로 그려왔으며 마지막 4과장은 분단과 예측의 사슬을 끊고 통일의 길을 가는 민중의 힘찬 의지를 한번 어우러지는 출판으로 엮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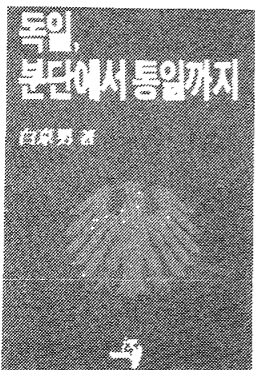
이번 공연을 보고 느낀것은 공연의 신선한 느낌과 더불어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온지 47년, 미국에 의해 분단된지 47년간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데 다시한번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91년 통일구국운동의 한 축인 반미비핵군축투쟁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도들의 염원도 함께 엮은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분단이후 미국과의 관계 재조명한 슬라이드 상영 일회적 문화행사 아닌 불교계의 지속적 움직임 돼야

되었는데 제1과장은 사물놀이패로부터 시작되어 이땅의 자주·민중·통일을 위해서 싸우다 먼저 가진

우리의 선배열사들에 대한 제사를 중심으로 형상화 하였고 제2과장은 8.15해방이후 분단과 미군진주 이

후 민족자주세력의 말살,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과 80년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백 경 남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음

새 책 소개

제체(서독형 자본주의)로 극복된 셈이다. 통독과정에서 아테나위는 서측과 협력을, 브란트는 동서분쟁을 넘어선 유럽협력의 기반을 다져 통독의 길을 닦고, 쾰른상은 국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독일문제'의 독일화로 코르바 초프 정권이 건재할때 질풍노도처럼 통일을 완성하였다. 이를 보던 독일 국민들은 시대에 걸맞은 지도자를 선출하였고, 지도자들은 시대의 과제를 한치의 착오없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독은 막강한 경제력, 우수한 과학기술, 민주주의능력, 가난한 사람 옆에 두고 행복해 질 수 없다는 사회정의에 철저한 공존의 지혜로 독일명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의 운명을 면제함으로써 독일명에서 독재가 더 이상 발을 부칠 수 없게 한 구서독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구독독시인들은 스탈린체제에 의해 임의로 절정된 억압적인 판로제

제의 경제와 끊임없이 충돌, 허탈과 좌절사이에서 방황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역사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모색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였다. 생을 짓누르고 있는 독재체제의 무거운 멍에를 안고 있는한 그를 민족의 위대한 개혁에의 참가는 방해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구독독시인은 좌절된 1848년과 1918년의 미완의 혁명을 1989년 혁명으로 완성하고 구독독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얼마남지 않은 금세기동안에 감내하기 힘든 분단의 모순과 아픔을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변명이 약속되는 21세기를 열어야 하는 민족적 과업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독일민족의 위업정서는 우리들의 지혜와 힘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한 분단 국가의 운명 역사의 아픔을 깨고 통일을 향해 극적으로 순간 순간 전개되는 생생한 감동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보면서 저술하였다.

(문화부)

해외연수기 중국을 다녀와서

우연찮게 백두산을 경유하는 중국연수기회를 갖게됐다. 홍콩, 북경, 연길, 백두산, 장춘으로 이어지는 8박9일의 여정은 우리민족의 뛰어나고 조국사랑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백두산의 풍채는 조국통일의 염원을 간절하게 느끼기에 충분했다.

사회주의국가이며 오랫동안 세계와 문을 닫고 지냈던 중국이 동구권과 소련의 변화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성급했음을 북경시민과 연변대학을 다니는 공산당원인



◇연변 조선민속박물관에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필자)를 공연해 했다.

용정시, 안도현을 거쳐 백두산에 오르는 길로는 한반도에서 볼 수 있었던 초기집들이 인상적이었다. 청산리대첩의 현장인 청산리 계곡

람들 손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모습이 분단조국의 실상으로 다가왔다.

백두산에 이어 들린 두만강(일명 도문강)에서는 두만강 푸른물이란

안개에 싸인 '천지'...형용할 수 없는 장관 연변대학 학생들과 통일외지 함께 나눠

학생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광명각이 황적역사가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란 말로 사상과 역사의 단절에서 오는 무지와 선입견을 표현했듯, 70여년의 사회의를 단 며칠에 보려했음은 조금 힘이있음을 밝혀놓기 좋았다.

북경에서 비행기로 4시간동안 날아 조선족 자치구의 하나이고 백두산등반의 길목인 연길시에 도착했다. 건물담벼마다 농지기회, 새금정수, 위생청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한글로 쓰여있고 조선말과 조선문화를 어느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연변대학에서 만난 법학부 리무현, 지철룡, 최준화학생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8·15해방후 단절된 남부조국의 역사

는 지난 역사를 아는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채 차갈만이 하늘을 내다보고 있었다.

연길에서 비포장도로를 5시간을 달려 천지호텔에 도착했다.

장백산맥의 한줄기에서 가장높은 백두산은 16개의 봉우리가 북한, 중국의 국경을 감싸고 있다. 천지까지는 짐차로 오를수 있도록 산길을 타고 시멘트포장도로가 나있고 산중턱에서부터는 거울에 내린 눈이 얼음덩이가 돼 깔로 배어났듯 한 절벽을 이뤘다. 백두산 꼭대기에 섰다. 온갖 색깔을 띤 암벽과 천지물의 오묘한 푸른색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장백폭포, 월계화, 온천 등 백두산주변의 정경에 못지않게 민족의 산이 남의 나라사

노래가락은 이미 옛이야기로 지금은 분단의 한을 가슴에 안고 흐르는 흠뻑물에 조선과 중국을 가르고 있어 통일된 세상의 두만강을 그려보았다.

흔히 외국을 나갔다 오면 사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경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해외여행바람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요즘, 이들이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볼 기회를 갖는다면-특히 갈라진 토하나의 조국의 백두산을 돌아본다면-해외여행바람은 곧 우리 버릴것이라는게 중국(특히 백두산)을 둘러싼 뒤의 느낌이다.

남 날 우
(농과대 농업경제학과)



'91 통일 한마당' 조국, 그 하나됨을 위하여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조국통일의 의의와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보고 각계각층의 통일열망을 담아보는 '91 통일한마당을 마련한다.

- 일시: 8월 31일 오후 4시
- 장소: 1,2,3부-현양대학교 대강당 4부-현양대학교 노천극장
- 진행: 1부(열린마당)-통일외지를 열고(열린판) 2부(노래마당)-여기 우리 하나(노래공연) 3부(통일마당)-조국, 그 하나됨을 위하여(노래) 4부(대동놀이마당)-나 서자! 통일의 한걸음(대동놀이)
- 출연: 김남주, 안치환, 예술림, 노레마의 다수

· 주최: 통일문제연구소 민족문화보편위원회
· 문의: 762-0017, 743-8609

극단 '현장' '지금 수송중'
극단 현장에서는 국민주의로보듯 실시이후 병원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많은 문제를 단순히 병원노동자를 또는 환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야 하는 '지금 수송중'을 공연한다.

- 일시: 9월 2일까지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 장소: 예술극장 한마당
· 입장료: 일반 4천원, 단체 3천원
· 문의: 743-1266, 762-7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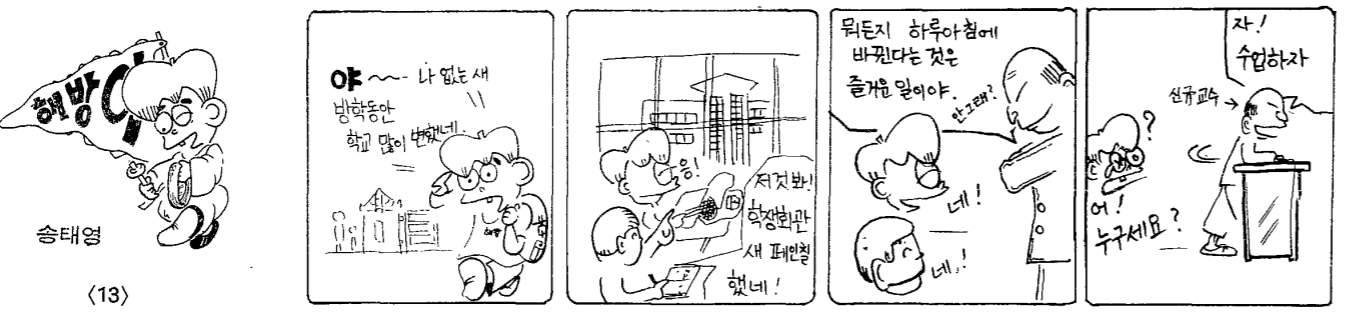
알림
오는 8월 31일자로 퇴임할 예정인 장원중(경제학과)교수의 퇴임인터뷰기사는 교수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부)

철학과 '내일 이야기' 공연
문과대 철학과에서는 죽음의 카타르시스를 해학적으로 다룬 연극 '내일 이야기'를 공연한다.

- 일시: 9월 2일~4일 오후 3시, 6시
- 장소: 상설전시장(학생회관 3층)
- 원작: 해롤드와 모드

석한 틈을 이용해 왕을 연금하고 살해한다는 이들의 계획은 실행되고 일본측과 개화파가 승리를 거둔다 하였다. 그런데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개화파와 일본의 야심은 후퇴하였지만 중국과 일본의 압력을 심화시키고 조선내 수구파의 세력을 증대시키는 결과

보수파가 개혁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사건을 통해 '보리스 옐친'리사 공화국 대통령은 일약 세계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더욱 윤택한 삶을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옐친은 공산주의는 이상이라 공언하며 급진적 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최대강국 미국도 옐친을 칭송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보다 나은 세상, 민중이 보다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도로 시작된 3원천회는 일본과 중국의 톱바퀴속에서 깨졌다. 쿠데타 이후의 소련이 일방적인 한사람의 주장이나 그 주위 동조·후원세력에 의해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은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제에 대한 개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景)



“서로 돕는 사회, 우리의 이상입니다”

고려생명보험은 —

고려증권과 17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CMI (Clerical Medical International) 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생명보험 전문회사로서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서로 돕는 사회 구현'이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공고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영업직 (능력 우수자는 관리자로 발탁)	00명	1. 4년제 정규대졸(예정) 남자 2. 만24세 이상의 군필 또는 면제자
2.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증명사진	4매	
4)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및 인성검사	
4. 제출기간 및 접수처		
1) 기간: 1991년 8월 26일(월)~9월 2일(월)	09:00~18:00(공휴일 제외, 단, 토요일은 14:00까지 접수)	
2) 장소: 고려생명생명보험주식회사 대리점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5-5 고려대연락센터 5층. Tel: 773-7733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6. 기타		
1) 이력서 상단에 연락처 명기할 것.		
2)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기타 세부사항은 당사 대리점 영업부로 연락바람.		